

나와 법/규범 사이의 거리, 그 속에서 찾아보는 개인의 자리

임윤경의 개인전 《개인의 자리》에 소개된 신작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²⁰²⁰와 〈자리찾기〉²⁰²⁰는 크게는 국가, 작게는 학급이라는 집단 체계 내에 존재하는 개인의 자리를 질문한다. 개인으로서 ‘법’ 또는 ‘규율’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를 물음으로써 보다 주체적인 역할 설정을 할 것을 관람객에게 제안한다. 전시에서 두드러지는 소재가 ‘법’임에도 전시 제목은 ‘개인’에 방점을 두는데, 작가의 관심이 법이라는 거대 담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모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두 작업은 이전 작업에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관계’의 이슈와 ‘사적 영역/공적 영역’의 문제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가령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나의 출생연도)〉에서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대비를 통해 개인과 사회(법)의 관계를 암시하며,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검정리본밴드)〉는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 조항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의복에 덧붙임으로써 법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역설적으로 환기시킨다. 또한 두 작업 모두 그간의 작업에서 보여준 독립된 개인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

전시 공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작업은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나의 출생연도)〉이다. 작가는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여러 법률 중에서 관심을 두고 선정한 법 조항^[1]이 제정/개정/폐지된 해에 태어난 참여자를 찾는다. 해당 연도에 태어난 사람을 찾으면, 법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그의 개인 공간 안 물딩선에 법 조항을 마르지 않는 페인트로 칠한 뒤, 그 공간을 전시장에 설치한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해 전시한다. 이 중 1986년 법 조항은 참여자를 전시 기간 중에 찾기 위해 전시장 입구에 참여자 모집 문구와 함께 따로 설치해두었다.

모든 사람이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그 영향 하에 있음에도, 일상에서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구별(차별)하는 법 조항을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크게 와 닿지 않을 법률을 한 개인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다소 불편한 법 조항을 개인 공간에 페인트칠할

^[1] 형법 제269조 낙태죄 개정(1953), 군형법 제92조 6항 '계간 기타 추행죄' 제정(196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968), 모자보건법 제14조 전문개정(1986),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강제불임수술 관련 조항 폐지(1999)

박혜진 독립 큐레이터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작가로서는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작가가 이 고단한 과정을 수행하는 이유는 설령 본인이 해당 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 수 있을지라도 법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과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특히 본인이 태어난 연도에 제정/개정/폐지된 법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겼을 때 개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임윤경은 심리적 거리가 먼 법률을 직접 개인의 사적인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지점으로 관람객의 관심 또한 유도해 정치사회적 이슈와 연결시켜주는 듯하다.

법 조항이 적힌 공간을 촬영한 모니터에서 크게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것은 없다. 얼핏 보기에는 스틸 이미지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가는 개인 공간에 칠한 법 조항을 사진으로 기록해 전시하거나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지 않는다. 임윤경은 실시간 모니터링되는 폐쇄회로 영상으로 현장을 직접 연결해 전시한다. 이는 법의 실시간 감시성을 강조하는 장치와도 같고, 그럼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다. 모니터 왼편 하단의 초 단위로 바뀌는 시간,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앞을 지나가거나 빛의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인식하게 되는 실시간 영상의 모습은 관람객에게는 “아차!” 싶은 순간이 되지 않을까. 또한, 공간 촬영을 허락한 참여자로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관람객의 시선이 자신의 사적 공간으로 침범해 들어오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감시 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즉, 참여자에게 그 공간은 더 이상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기에 공공의 이슈로 대변되는 법 조항을 더욱 의식하게 하는 설정이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법률이라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전시장에서는 역으로 폐쇄회로를 통해 개인(관람객)의 시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한편, 전시 기간 중에 방문한 관람객 중에서 1986년생 참여자를 찾는 설정은 관람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1986년생 관람객은 물론, 1986년생 지인을 떠올릴 관람객은 해당 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작업이 작가와 참여자 다섯 명만의 주제로 그치지 않고 관람객 개인과도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또한 1986년생을 찾는 과정 자체를 드러낸 전시 방식은 참여의 맥락을 강조하고 작업의 구성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앞서 본 작업에서는 특징인이 참여자가 되었고, 그 사람의 사적 공간이 공공의 공간인 전시장으로 소환되었다. 반면에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검정리본밴드)〉에서는 관람객 모두가 참여 대상자가

되며 이들이 전시 공간에서 만들어낸 작업물이 개인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전시장의 한 벽면에 설치한 반원 모양의 커다란 테이블 위에서 작가의 협업자가 재봉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아홉 가지 법 조항의 타임-라인^[2]을 얇은 검정 리본에 흰 글씨로 프린트해 8mm 필름 릴에 감아 두었는데, 관람객은 원하는 조항(들)의 타임-라인을 선택해 자신이 입고 온 옷의 재단선 어딘가에 박을 수 있다. 본인과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쉽지 않는 법 조항 타임-라인을 피부와 가까이 닿는 옷의 재단선까지 들여와 박아 놓은 모습은 법의 통제로 감싸진 몸의 모습을 그대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수없이 얇힌 정치사회적 사건과 논쟁의 무게 때문에 많이들 애써 외면했던 법 조항이 패션 포인트로 탈바꿈해 예기치 못한 위치에서 불쑥 등장해 여러 사람의 시선을 끈다. 마치 별 얘기 아닌 듯 쓰여진 문구는 오히려 그렇게 작게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의견을 묻고 논의를 불러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리본을 통해 해당 법의 존재를 제시할 때, 작가든 참여자든 법 조항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리본 밴드에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액티비즘 성격을 띠는 타 작가들의 참여 작업과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임윤경의 작업에서는 열린 토론이 가능하다.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검정리본밴드)〉는 작업의 일부를 참여자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에 기념적 성격을 띄기도 하는데, 참여자의 의복에 덧붙여진 작업(리본)은 전시공간 내에만 머물지 않고, 전시 기간 내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리본을 옷에 박은 사람들은 각각의 영역으로 뿔어나가 각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법 조항 타임-라인을 노출하고, 또 해당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각각의 참여자가 선택한 법 조항, 옷, 리본을 박은 위치는 모두 다를 것이며, 더욱이 이들이 그 옷을 입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과 주고받는 의견 또한 각각각색일 것이므로 작업은 사회에서 조용하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된다. 법이라는 거대 담론이 개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여러 갈래로 분포해 그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재단선에 박힌 법 조항 타임-라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회자될지는 알 수 없고, 이는 작가 통제 밖이다. 이러한 점은 임윤경의 작업이 완성

^[2] 1953 형법 제269조 - 낙태죄 개정
1962 군형법 제92조 6항 - 동성애 처벌법
1968 주민등록법 시행령
1986 모자보건법 제14조 - 우생학적 차별
1999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강제불임화
2008 호주제
2016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성판매자 처벌법 합헌
2019 낙태죄 헌법 불합치
2019 장애인 등급제

시점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는 진행형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설득, 대화 등 참여자와 작가가 작업을 통해 겪는 과정 전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세요)〉는 일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옷에 검정리본밴드를 박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작업일 수 있다. 일종의 비밀번호와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전시장 벽에 쓰라는 요청은 꽤 도전적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신원이 13자리의 숫자로 치환된 것이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개인 번호를 공공 공간에 적는 것은 국가의 통제에 대한 나름의 작은 저항 같기도 하다. 다만,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과 같은 칸에 비슷한 크기와 서체로 숫자를 덧씌움으로써 결국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로써 주민번호를 적은 모든 개인은 익명으로 전환되고 집단화된다. 의외로 이 작업은 법이 나의 신원에 미치는 강력한 통제력을 꽤 간단하지만 직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준다.

자리찾기

〈자리찾기〉에서는 고등학생 세 명이 혼자 설 수 없는 기역 자 모양의 나무판 의자들을 이용해 일인용 책걸상을 공유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논의 주제는 작가가 학생들에게 질문한, “팀플레이를 위한 교실 공간 배치”이다. ‘팀플레이에 적합한 공간’을 논의하고자 이미 ‘팀플레이’에 들어간 학생 세 명은 그들의 논의 장소인 일인용 책걸상을 공유함으로써 협업이 겸비된 자리찾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형식적 장치를 보여주고, 주어진 프레임은 그대로 수용하여 따르기 보다 활용하는 면 또한 보여준다. 한 팀 당 세 명씩, 두 팀이 등장하는 영상에서는 각각의 학생들이 생각한 자리 배치를 스스로 소개하고, 팀원들과 배치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후에 실제로 각각의 제안에 따른 책상 배치를 해보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가가 생각하는 ‘집단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세 명의 개인이 모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학급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보고, 이를 반영해 공간 구성을 바꿔보는 과정은 사회 제도에 대해 본인의 입장과 역할을 찾아보는 과정의 비유로 보인다. 암묵적으로 규범화된 자리 배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공공의 장소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데,

특히 일방적으로 교탁(선생님)에 집중된 교실 구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다양성과 수평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학생들의 의견은 개개인의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법도 개정/폐지되는 사회 속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교실의 구성은 그야말로 재고 대상이자 사람마다의 입장이 반영된 자리를 찾아보며 다양한 논의를 해보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한다.

임윤경의 이전 작업들 대부분이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였다면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는 공공의 이슈에서 출발해 이를 개인의 경험으로 돌려준다. 법이라는 국가 제도를 나의 위치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가는 법 조항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의 입장이더라도 문제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역할과 책임을 나눌 수 있으며, 의견을 내는 개인의 자리를 만들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하는 듯하다. 그러한 개인의 자리들이 모여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타인의 참여가 포함된 작업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작가는 혼자서만 작업하는 경우가 드물다. 임윤경의 작업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작업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는 데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도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법 조항, 사회제도, 규율을 다루고 있지만 관람객은 어렵지 않게 주제에 공감하고 개입한다. 제작한 결과물을 관람객에게 제시하는 일방향의 전시 방식이 아니었기에 이번 전시의 주제에 대해서도 관람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